

## 시경 중의 “악(樂)” 사상 연구

송진열\*

### 【목 차】

1. 서론
2. 선행 연구
3. 『시경』 중의 악과 고대 생활(樂과 古代生活)
4. 『시경』 중의 악(樂) 과 화(和) 사상
5. 결론

### 【초록】

이 연구는 중국 선진 시대 대표적인 경전인 시경에 나타나는 악(樂)과 화(和)사상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예”보다는 “악”에 집중하여 악이 어떤 규칙으로 완성되고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음악의 규칙은 자연의 오행과 연관이 되어있는데 이런 철학적 원리보다는 음악이 어떻게 화를 이루는 수단이 되고 교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경에 수록된 시의 구체적인 예를 분석하기 전에 중국인들의 풍류의식과 더불어 제천 의식에서 가무의 사용을 먼저 다루고 군사나 전쟁 중에 음악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고대 중국인은 예(禮)를 중시함으로써 사회적 화합을 강조하는 화(和) 사상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인식은 시경의 여러 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시경에 가장 먼저 실린 시 「관雎(關雎)」, 그리고 탕왕(湯王)을 기리는 시 「나(那)」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악이 어떻게 화를 추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화를 추구하는 중국인의 사상을 시를 통해서 살펴보고 분석하면서 예악과 화에 관한 사상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키워드】 제천의식, 예악, 금과 슬, 종과 고, 화

\*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교수 (sjsimon@hanmail.net)

## 1. 서론

인간은 대자연을 보고 경이를 느끼며 “인간은 누구인가?(Wer ist das Mensch?)”라는 질문을 던져왔다.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러한 존재론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다. 즉 문학은 사유의 대상인 동시에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문학작품은 동시대인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통해 그 시대의 인식에 접근해가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이다. 문학은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추상적 요소인 문자로 표현함으로써 사회를 반영하는 기본적인 매체라 할 수 있는데 운율, 절주의 형식인 서정시와 소설과 같은 서사시로 구분된다.

중국에서의 “예(禮) 관념은 일체의 규범, 법령, 제도 및 사회적 질서의 의미를 포함”<sup>1)</sup> 한다. 유교 사상에서 예(禮) 문화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계급에 따라 연회 때 악기의 사용 및 무용수 선정에 차이를 둠으로써 엄격한 피라미드적 신분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도구로도 작용했다. 천자는 정9개를 사용하고 제후는 6개, 경은 3개를 사용하는 등 엄격한 예식과 행동을 취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꾀했다. 이는 고대사회의 계급문화가 형성되어 후대로 갈수록 복식을 통해 신분을 구별하는 제도가 엄격했던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고대 중국의 왕은 민심을 알고 선정을 베풀기 위해 가사를 채집하는 기관을 두어 기록으로 남겼다. 『시경(詩經)』은 이러한 기록 중에 주나라부터 전국 시대까지의 채집된 노래 가사를 모아 공자가 편찬한 것이다. ‘예’와 ‘악’관계에 관해 상세히 해석하는 시경을 통해 공자의 위대한 학자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자가 편찬한 시경에 수록된 다양한 운율의 시가 모음은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읽히거나 노래로 불리면서 시대의식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시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는 물론 음악과 악기를 사용해 ‘예’와 ‘악’이 서로 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찰하려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고대 중국인들이 음악을 사용한 형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운율로 표현된 고대 시경에 나타난 음악이나 악기를 중심으로 예악이 어떻게 중화사상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가 어떻게 인간성을 표현하고 인생의 발로를 위한 교화의 매체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 2. 선행 연구

멕시코 음악가 카를로스 차베스는 “시가와 음악은 인류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듯이 시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사고의 산물이다.<sup>2)</sup> 중국 최초의 문학 형식은 일정한

1) 최경옥, 「禮 理念의 전개」, 『인문학논총』,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08, p.323.

2) 詩歌和音樂表達人類的思想狀態. Carlos Chavez, 『音樂中的思想』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5, p.54.

배율을 가진 시였다. 고대 중국인들은 시를 통해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했는데 시 모음집인 시경은 주나라와 춘추전국시대의 생활상이나 사상을 알 수 있는 시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의 예악관을 보면 전통 유학 사상의 하나로 예를 중시하고, 예는 악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예와 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실체로서 절제된 감정의 표현인 화(和)를 이룬다는 독특한 음악관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만을 지키게 되면 인간의 본성은 딱딱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의 오락적인 감정을 발산하고 즐거움을 표현하고 흥에 취함으로써 도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의 학자 김해명 씨는 『周代 樂儀의 性格과 그 分類』에서 인간관계에서 악을 통한 감정의 표현에서 화(和)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시경은 고대 중국인들이 혼인이나 제사에서 즐거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오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류창교는 『『詩經』의 즐거움의 세계』에서 시경은 고대 중국인들이 혼인이나 각종 연회에서 악과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거움을 표현한다고 기술하고 있다.<sup>3)</sup> 이런 악을 이용한 즐거움에 대한 표현은 신분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어서 천자나 왕, 제후, 귀족들이 주된 향유층이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궁중음악은 매우 정제되고 절제된 형태로 감정을 표현할 때조차 화를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시경은 왕의 행동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자 하는 인문 교양적인 예악 사상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중국의 학자 유지강(劉志剛)은 『淺析『論語』中“禮樂”之“樂”』에서 공자의 『論語』를 중심으로 화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인들에게 있어 악은 인간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했고 일상생활 가운데 연주되었던 악에 의해 중국의 전통문화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

### 3. 시경 중 악(樂)과 고대 생활

고대 중국인들은 농경 중심 사회로 황허 강의 범람 같은 자연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중앙 집권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농경은 자연의 힘이나 현상에 의존하였다. 고대 중국인들은 황허 강의 범람에서 농경지를 재정비하기 위해 중앙조직을 필요로 했다. 치수 사업은 고대 중국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치적 중의 하나였으므로 국가적 행사로 여겼다. 그리고 범람을 막고 홍수가 난 뒤 농경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의 수준의 작업으로는 힘들고 광범위한 지역전체가 필요했다. 이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조직이 필요하며, 또 강압에 의해 사람들을 동원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돌리는 신정정치(神政政治)가 확립되어야 한다.<sup>4)</sup> 중앙 집권의 체제를 갖춘 지배자들은 하늘에 제사(祭祀)를 지내고 복을 받으려는 신정정치를 하였다. 향을 피우고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국가의 대업이었다. 이런 제천의식에서 왕은 신정일치의 제사장으로서 하늘과 통교하고 하늘의 뜻을 전하

3) 류창교, 「시경 즐거움의 세계」, 『동아문화』, 제55집, 2017.

4) 주경철, 『문화로 읽는 세계사』, 사계절, 2005, p.28.

는 사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가뭄이 계속되어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나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는 제천의식은 국가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는 하나의 의식(儀式)이 되었다.

이러한 의식에 악(樂)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이 끝나면 백성들은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즐기기 시작했다. 이런 의식은 국가의 대업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이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아가의 사용인데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가 리듬이 주어지면서 가사가 되고 무를 통해 표현되면서 신(神)과의 교감을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예악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일세의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면 예악의 시행에 앞서서 먼저 시교(詩敎)를 베풀어야 했다. 짧고 재미있고 노래하기 쉬운 시를 널리 퍼뜨려 마음을 착하고 아름답게 촉발하자는 취지였다. 즉 고대에는 시가무악이 구별이 없었으므로 시가 노래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고, 기악이 포함된 시가와 무용이 완비된 형태의 악으로 발전했다. 공자의 말대로 시에는 사람을 흥기시키는 기능이 있었던 것이다.<sup>5)</sup>

악이 사용될 때 제천의식에 참가하는 심미적 주체들이 객관적 대상이 노래와 무를 접하게 된다. 이 때 마음 속에서 절로 흥이 일어나거나 정이 일어나 하나의 일치감을 이루게 된다. 시 역시 심미적 주체인 인간이 시의 정감을 접하게 될 때 마음에 정이 일어나고 흥이 생기게 마련이다. 시는 악과 무가 분리될 수 없는 형태로 고대 중국인들의 제천의식이나 연례 때 가사에 음악이 가해지면서 흥을 돋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고대의 시는 가와 무가 혼연일체가 된 종합 예술의 형태이다. 악은 사실 공자 철학 체계의 중요한 철학적 범주로서 개인 인격 수양, 정치제도, 사회 윤리 등 사상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서 제기되었다.<sup>6)</sup>

중국인들에게 음악은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왕국이 건국될 때 가장 먼저 악을 정리함으로써 왕국의 정당성을 주창하려고 하였다. 제천의식에서 음악은 사회의 통합 수단인 동시에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강력한 매체였기 때문이다.

음악은 예술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었고, 예술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풍속교화의 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분야이기에 악으로 예술 전반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고대 중국에서 악은 예술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시와 무가 종합적으로 행해지면서 왕이나 제후들이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질서를 강조하는 엄격한 유교 사상에 부드러움을 강조하면서 화를 강조하는 고대 중국인의

5) 윤용섭, 『악 음악, 마음을 다스린다』, 글항아리, 2014, p.55

6) 事實上“樂”作爲孔子哲學體系中的重要哲學範疇，在關於個人修養，政治制度，事會論理等思想的闡釋科程中也都有對樂的提及. 유지강·김창경, 「淺析『論語』中“禮樂”之“樂”」, 제49집, 『동북아문화연구』, 2016, p.360.

7) 신은역, 『풍류』, 보고사, 1999, p.70.

화하(華夏) 사상이 탄생된 것이다.

시경은 고대 중국인의 풍류놀이 문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풍류는 멋지면서 고상하게 노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풍류는 노는 것이되, 미적으로 예술적으로 노는 것<sup>8)</sup>을 말한다. 이런 중국인의 풍류의식은 시경에 잘 나타나 있다. 시경은 본래 노래가사로서 고대 중국인들이 각종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으로부터 온 사신을 접대할 때, 제례의식 등에 사용되었다. 궁중이나 귀족들은 연회를 베풀면서 주연에 악을 가미해 그 즐거움이 배가될 수 있도록 했다. 연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러한 놀이를 통해 ‘더불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시경에 수록된 시 「관저(關雎)」를 보면 금을 연주하면서 술을 서로 권하는 것으로 여흥을 즐기거나, 노래에 박자가 있는 악을 수반하고 가무를 곁들여서 흥을 더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시에 박자를 넣어 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가미하는 것이 중국 고대의 놀이문화였는데,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놀이하는 인간의 모습(Homo Ludens)이 잘 드러난다. 이를 통해 풍류를 즐기는 귀족문화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흥겨운 자리에서 즐겁게 노는 풍류 놀음<sup>9)</sup>을 통해서 궁중 및 귀족들의 연악의 풍경도(宴樂의 風景圖)를 볼 수도 있다. 궁중이나 귀족이 모여서 북을 두드리고 편종(編鐘)까지 연주하면서 흥을 즐기는 주연 문화(酒宴文化)를 엿볼 수 있는데 이처럼 악은 연회에 참가하는 이들에게 풍류를 즐기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풍류란 미적 인식에 기반을 둔 일종의 놀이 문화라고 일차적인 성격규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풍류는 놀이문화의 원형인 동시에 예술 문화의 원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sup>10)</sup>

위의 인용문이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시경의 「녹명(鹿鳴)」 같은 시를 통해 연회를 베풀어 즐거움을 누리는 놀이적 측면과 더불어 악을 연주하며 풍류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은나라와 주나라 및 춘추 전국 시대 때 제후국가 간의 영토 전쟁은 빈번했다. 이 시대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청동기로 만든 정 종류의 종(鐘)이 크게 제작되었는데 전쟁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울렸다. 전쟁이 끝나고 휴식을 취할 때는 3발 달린 술에 음식을 끓여 먹으면서 서로 간의 화합을 다짐하기도 했다. 종은 단지 군사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화합과 일치감을 느끼게 해주는 집단의식의 상징물이 되었다.

청동기 시대 이후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종(鐘)이 쓰였을 뿐만 아니라 퇴각할 때도 다양한 종(鐘)이 울렸다. 이처럼 종은 전쟁 때 사용되면서 국가의 운명과 함께 하는 중요한 악기가 되었다. 전쟁의 시작, 퇴각 신호인 동시에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도 악(樂)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악(樂)이 그만큼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음악을 인간에게 좋은 아악(雅樂)과 나쁜 음악으로 나누었다. 인간에게 조화를 제 공해주는 조용하고 느린 아악은 좋은 음악이라 정의하는 반면, 불협화음의 빠른 음악은 나쁜 음악이라 하여 정음(鄭聲)이라 칭했다.

8) 위의 책, p.71.

9) 위의 책, p.53.

10) 위의 책, p.66.

또한 왕의 조례에서 음악은 필수적인 요소로 당상의 악기와 당하의 악기로 나누어졌다. 방중악과 당상에는 규모가 작은 악기들이 편성되고, 당하에서는 편종이나 편경 등 아주 거대한 악기들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노래와 춤이 가미되면서 조례의 엄숙성과 왕의 권위를 대변하기도 했다. 시경의 시 「만무(萬舞)」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무용수들이 일무를 추면서 궁중 의식의 막을 연다. 왕의 문덕을 찬양하기 위해 오른손에는 직(翟)을 왼손에는 악(簫)을 들고 춤을 춘다. 그리고 왕의 무공을 칭송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에는 칼과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춤을 춘다. 악은 국가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서 권위와 화합을 상징하는 요소가 되었다.

선진시대 아악은 인간을 교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궁중의 각종 의식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아악은 궁중에서 연주 음악으로 사용되면서 국가의 행사나 다양한 연회에서 사용되어 점차 하나의 공연예술 형태로 발전하면서 당대의 의식을 반영하는 매체가 된다.

#### 4. 중국인의 악 사상

중국 미학의 기본 개념은 가운데 중(中)자와 조화로울 화(和)자를 합친 글자 “중화(中和)”에서 출발한다. 중(中)이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최적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의 유교 정치는 예에 의한 다스림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치는 예와 악이 화합해 조화를 이루는 ‘화(和)’의 사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예와 악은 상호 보완적이다.

예와 악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성품과 감정을 바로잡아 국가의 질서와 통합을 확보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sup>11)</sup>

중국 문화의 핵심 중 하나인 중화사상에 대해 공자는 예악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였다. 음악은 당시의 사회상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동시에 예악을 통해 교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원전 6세기경 공자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음악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생각했다. 공자의 중용사상(中庸思想)은 음악에서도 엄격히 적용되었다. 후에 유학자들은 음악과 악기 및 의식 절차에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현학적으로 설명하였다.<sup>12)</sup>

공자에 의하면 감흥을 주거나, 사물을 인식하거나, 대중과 함께 화락하거나,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것에서 시의 효용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시를 통해서 흥을 돋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음악을 가미해 연회나 향연을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 군자가 오매불망 구하던

11) 금장태, 『한국유학의 악론』, 예문서원, 2008, p.5.

12) 韓萬榮·金仁平, 『東洋音樂』, 삼호출판사, 1996, p.15.

여인을 만나 琴瑟을 타며 화락을 즐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관저를 살펴보면 이러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子曰: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시는 흥기 시킬 수 있으며 살필 수 있으며, 어울릴 수 있으며, 원망할 수 있다.<sup>13)</sup>

위에 제시한 인용문 『논어(論語)·양화편(陽貨篇)』을 보면 공자가 시의 효용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가 이렇게 흥을 돋우지만 특히 음악 가사로 쓰일 때 더욱 그러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와 함께 악기가 연주될 때 더욱 흥이 돋워지리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예악의 이런 중화사상은 국풍의 시 관저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인간의 예악 문화(禮樂文化)는 주나라와 혼란한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 고대 사상이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詩經』에 나타난 음악이나 악기를 연구함으로써 각종 의식에 따라 착용하였던 음악의 종류나 형태를 고찰한다. 특히 고대 중국인들이 시가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상징적 의미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경의 관저에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화를 이루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금슬은 바로 2 중주 합주를 하는 대표적인 조화의 표시로서 부부의 좋은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관저의 시에서 금과 슬은 연주되는 동안 화를 일으키면서 인간에 기쁨을 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악기의 조화는 인간의 조화를 상징할 수 있는 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인의 중화(華夏)사상의 핵심은 바로 화에 있듯이 음악의 목적도 협화를 이루는 데 있다. 8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악기를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조화로운 음악이 자연에 울려 퍼지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면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자연에의 순응은 동양 문화의 일반적인 특색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음악에 있어서도 이른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때 인간의 정신생활은 질서와 도덕적 감화를 얻게 된다고 믿었다.<sup>14)</sup>

대우주와 인간의 조화, 천체 운행과 인간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의 조화를 이룰 수 있기에 어떤 음악이든지 인간 심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이런 자연 합일은 중국인이 추구해왔던 사상으로 악기를 통한 자연과의 화를 이루고자 하는 고대 중국인의 악관이 잘 드러나 있다.

음악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소리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음악의 유일한 표현수단, 즉 전달매체는 소리이다. 어떤 물체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면 물체가 진동하는데, 이 진동이 인간의 귀에 전해지고 청각의 자극이 뇌에 전달되면서 비로소 소리를 인지하게 된다. 소리가 지니는 일반적 성질인 썸여림(強弱), 길이, 높낮이, 음색 등 진동하는 물체의 성질과 진동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 소리의 네 가지 성질 중 썸여림과 길이는 음악에서 리듬으로 표현되며, 높이가

13) 張基樞, 『공자』, 平凡社, 1976, p.450.

14) 김진균, 『古代 東西洋의 音樂觀』, 東西文化, 1979. p.198.

다른 음을 順次的으로 구사하여 높고 낮은 선율을 만들기도 하고, 높낮이가 다른 악기 중의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 개를 조합하여 원하는 음향을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음악은 소리가 지니고 있는 이들 네 가지의 성질을 적절하게 변형하고 조합하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sup>15)</sup>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서로 왕이나 천자가 되겠다고 전쟁을 하던 상황에서 공자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음악을 활용했다. 예를 통해 질서 체계를 확립하고 악은 하나의 보수 수단으로 예의 완성을 꾀하고자 했다. 누구든 예를 어기면 사회에서 지탄을 받았지만 예만 강조하면 사회가 딱딱해지므로 악을 통해 화합이나 동화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 중국인들은 예와 악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음악에 대한 관심을 통해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유화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천자, 제후가 피라미드적 질서를 유지하는 체계를 음악적 소통으로 화합을 꾀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같은 음악을 듣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도 했다.

또한 중국 음악의 특징은 확실히 과학성보다는 정치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자의 영향으로 중국 음악은 정치와의 연관성이 더욱 커진다. 공자는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며 교육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음악에서도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음악에 지대한 관심과 소질이 있었다. 그는 고대의 순(舜)임금이 만들었다는 소(韶)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음률에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릴 정도로 음악적 감수성이 뛰어났다.<sup>16)</sup> 그리고 실제로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으며 만년에는 고대음악을 정리하여 그것을 제자들의 교육에 활용했다.

공자가 음악을 좋아했던 것은 물론 개인적 취향도 있었겠지만 음악의 정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공자는 음악에 담겨 있는 정치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했다. 물론 이 말은 음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음악을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좋은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말이다. 즉, 음악을 통해서 스스로의 성정을 도야하고 나아가 세상을 교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중국 고대인들에게 시란 당연히 음악의 일부분으로서의 노래를 의미했다. 이 때문에 유교에서 시로써 백성을 교화시키는 시교(詩敎)와 음악으로써 백성을 교화시키는 악교(樂敎)는 거의 같은 의미다. 그리고 그것은 예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예교(禮敎)와도 통한다. 실제로 악은 중국에서는 예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였으며 그래서 예악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고대 중국에서 예의 본질은 사회 계층과 신분 사이의 질서 확립이다. 그리고 그 질서란 차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차별적인 질서가 확립될 때 사회는 안정된다. 그러나 차별성을 강조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소원해지고 사회는 삭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악이 필요한 것이다. 악의 본질은 서로 동화되어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악이 너무 강조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난잡해질 수 있다. 반대로 질서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서로 거리감이 있게 되므로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화와 균형을

15)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p.26.

16) cited from m.iask.sina.com.cn



위해 악의 필요성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입장에서 음악을 제정한 목적은 개인적인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화를 통한 윤리교육의 회복과 정도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역대 봉건 왕조에서는 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화 자체가 정치를 저울질하는 표준이 되기도 하였다. 物心の 조화를 이룬 음악은 중국 고대사회에서 인치의 이상적인 경계인 和의 표상이었다.<sup>17)</sup>

전한시대에 악은 예의 표현수단으로서 왕이 민족을 통치하는 수단이나 교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시경의 시가 채집되어 기록되었던 주(周)대부터 춘추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거행했던 제사의례(祭祀儀禮)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을 숭배하는 예악 제도가 완비되었다. 그리고 음악의 입지 충악을 마련하였으며 인(仁)과 덕(德)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토대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당시 이루어졌던 악기 편성이나 철학적 사상들이 오늘날까지 전파되어 종묘 제례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고대 중국인의 경전인 시경에 수록된 시 「관저(關雎)」나 「나(那)」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종묘제례에 사용되면서 국가의 안녕을 꾀하거나 공동체의 동질감을 제공하는 데 쓰여 왔다. 악을 예의 완성의 수단으로 보면서 예와 악의 조화인 和를 강조한 것이다.

시는 장단 고저가 있고 노래에는 음이 있기 때문에 시를 곡에 붙이면 노래로 부를 수 있게 된다. 시는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악기 연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 감정을 토로하는데 매우 유용한 매체가 된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회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러한 표현에 음악은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왔다. 음악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와 문화에서 음악의 주된 기능은 인간의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소리를 통해 만들어진 인간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사회와 문화 속의 동인은 인간에 의해 조직된 소리로 표현되게 마련이다. 음악가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나 집단에서 항상 필요한 존재였다. 음악가는 그 마을 집단의 통합을 가져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집단의 군무나 의식에 참가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sup>18)</sup>

시경에는 당시에 사용되던 악기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오동나무와 실을 꼬아 현악기를 만드는 등 자연에서 재료를 구해 자연친화적인 악기를 만들어낸다. 돌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석경으로 악기를 만들기도 했다. 자연적 재료를 통해 자연과 친화되는 동양 사상을 악기 제조에서도 엿볼 수 있다. 피리 역시 대나무로 본체를 만들고 중앙에 갈대 청을 붙여 소리를 크게 울려주는 악기인데 소재가 매우 자연 친화적이다.

인공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의 것을 그대로 응용하여 만든 악기는 듣는 이에게 심정적으로 안정과 고요함을 느끼게 한다. 다시 말해 자연의 재료를 악기로 만들어 연주하게

17) 오창화, 「鄭聲淫, 鄭衛之音에 대한 論考」, 『인문학논총』, 경성대학교, 2008, p.23.

18)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인간과 악기』, 모노폴리, 2016, p.23.

되면 우리의 심성에 맞는 자연의 소리가 나와 자연과 친화 또는 자연과 합일하게 된다. 고대 중국인들은 자연에 있는 요소를 끌고 와서 그들이 문화에 접목하고 그들에 맞는 심성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중국의 고대 악기의 하나로 인간의 수양을 위해 금이 연주되었는데 금은 오동나무로 밑동을 만들고 섬유인 실을 꼬아서 줄을 만든다. 자연의 소리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연의 것을 가져와 자연의 감정 현상을 넣는다. 모든 음악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더불어 희로애락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시경의 첫 번째 시인 관저에 잘 나타나 있다. 일인연주가 가능한 금을 타면서 여인을 기쁘게 해주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周南·關雎」

關關雎鳩,	꾸옥 꾸옥 물수리는,
在河之洲.	물속 모래섬에서 울고 있네.
窈窕淑女,	아리따운 숙녀는,
君子好逑.	군자의 좋은 짝.

參差荇菜,	들쭉날쭉 노랑어리연꽃은, <sup>19)</sup>
左右流之.	좌로 우로 흔들거리는데,
窈窕淑女,	아리따운 숙녀를,
寤寐求之.	자나 깨나 얻고 싶네.
求之不得,	구하여도 얻지 못해,
寤寐思服.	자나 깨나 생각노니,
悠哉悠哉,	길고도 길어라,
輾轉反側.	엎치락뒤치락 잠 못 이루네.

參差荇菜,	들쭉날쭉 노랑어리연꽃을,
左右采之.	여기저기서 따리라.
窈窕淑女,	아리따운 숙녀를,
琴瑟友之.	금을 타고 슬 뜯으며 벗하리라.
參差荇菜,	들쭉날쭉 노랑어리연꽃을,
左右芼之.	이리저리 고르리라.
窈窕淑女,	아리따운 숙녀를,
鍾鼓樂之.	종 울리고 북 두드리며 즐기리라.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하고 예악(禮樂)을 중시하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修身齊家 治國 平天下)라는 기치를 들고 절대 권력을 가진 중앙 집권 국가를 건국하였다. 주나라의 사상은

19) 노랑어리연꽃(다음사진): 수생 식물로 뿌리줄기는 물밑 진흙 속에 가로로 뻗으며 원줄기는 물속에서 비스듬히 자란다. 잎은 물위에 뜨며 7~8월에 밝은 황색의 꽃이 물위에서 핀다.

출처: <http://www.1688.com/combo/-DCF4B2CB.html>

시경의 시에 잘 드러나는데 수신제가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저(關雎)」편의 의미를 살핀다면, 「관저(關雎)」는 문왕과 태사의 성정의 올바름을 노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부부의 윤리가 이룩되고 제가를 통하여 주나라의 건국이라는 治國 平天下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은 「관저(關雎)」는 유학의 이상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정(性情)의 올바름은 「관저(關雎)」시에서 군자들의 행동에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군자가 배필을 얻지 못해도 조급함을 보이지 않고 감정이 드러나더라도 중용(中庸)과 화(和)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 성정의 올바름을 가진 모습들을 노래하면서 시는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수신제가의 한 덕목으로 육예(六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나라는 고공단보로부터 왕계를 거쳐서 문왕에 이르러 은나라를 정벌할 기초를 쌓았고 무왕이 천하통일을 이룩하자 주공이 성왕을 도와서 예악을 제정하였는데, 주공은 문왕의 시대에 이르러 시를 교화의 수단으로 삼아서 치국평천하를 이룩한 것이다.<sup>21)</sup>

주나라의 왕들은 민간이나 궁중에서 불리는 시를 채집하고 수록하여 치국의 근본으로 삼는 동시에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관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올바른 군자의 성정이란 수신이나 치국이 그 근본임을 시사되고 있다. 관저는 이런 교화적인 측면이 강해 악이 예를 완성하는 수단임을 잘 드러내준다.

또한 시는 사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시가 가사로 변하여 악이 더해지면 감성을 자극하고 표현하는 데 더욱 적절한 매체가 된다. 인간의 감성은 악이 있게 되면 흥이 절로 나게 되고, 흥이 나면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감정이 정화되기도 한다. 예악이 하나의 시로 인간의 감정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흥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흥에 내포된 즐거움의 요소는 가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sup>22)</sup>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되면 흥이 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시는 이처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악과 연결되어 즐거움과 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는 단지 교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토로하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관저 3장을 보면, 군자는 오매불망하던 여인을 구하게 되어 기쁨에 차, 금을 타고 슬을 뜯으며 환희에 찬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금이라는 악기는 중국 고대에 사용한 현악기로 공명판은 오동(梧桐)으로 만들어졌고 7개의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명주실로 엮어 줄을 튕기면서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 오동나무의 공명판이 텅 비어 있고 실로 엮어 만든 7개의 줄을 튕기면 슬보다는 울림이 강하고 소리가 명확하다. 반면 25개의 실로 만든 슬은 줄이 금의 2배 정도로 많아 부드럽고 미묘한 소리를 낸다. 크면서도 강한 금의 소리와 작고 미묘한 슬

20) 오종일, 「시경 「관저」편과 치국 평천하」, 『공자학회 논문집』, 2004, p.78.

21) 위의 논문, p.81.

22) 신은역, 『풍류』, 보고사, 1999, p.99.

이 함께 연주되면 강하고 분명한 소리와 부드러우면서도 미묘한 소리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금은 강한 소리를 내므로 양의 모습인 남성성을 상징하고 술은 약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의 모습인 여성성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금과 술은 고대의 연회에 가장 흔하게 연주되는 현악기로 2중주로 연주되면서 남녀의 화합을 상징하게 되었다.

관저는 시경 305편의 첫 번째 시로서 악이 어떻게 인간에게 기쁨을 제공해주는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공감을 만들어내는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 관저 4장의 문맥을 보면 종과 고를 연주하면서 연회를 베풀고 있음이 드러난다. 큰북 역시 연회에 사용되어 하나의 관현악을 이루는데 군자가 절세미인의 여인을 얻음에 기뻐하고 종과 북을 울리는 대목이 있다. 관저의 마지막 장에서 군자는 악사들을 시켜 종을 강하게 치고 북을 크게 울리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각 장마다 악기를 통해 회로애락이 표현되고 그러한 예악으로 청중과 연주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금의 5현금은 음양오행 사상을 표현하면서 인간 사이의 화, 우주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다. 금은 문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금지할 금으로 사악한 생각을 금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술은 폐(閉)라는 뜻으로 분노의 생각을 막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금과 술을 연주하는 것은 중용과 화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졌고 선비들이 인격의 수양을 위해 악기를 연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악기에서 음악은 예절과 짝을 이루는 존재로 화和를 본질로 하는 문화작용으로 다뤄진다. 화란 화평, 화합, 화목, 유화, 평화, 평안, 조화를 말하며, 작계는 마음의 평안, 사람들 사이의 화합, 나아가서 한나라와 세계의 평화, 우주의 조화를 말한다.<sup>23)</sup>

중국의 모든 악기 편성은 예악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음악은 단지 감성을 이끌어내고 흥을 돋우는 기능 외에도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나라 시대에는 탕왕께 제사 드리는 악사(樂詞)로 시경의 시가 활용되었다. 주나라의 제례의식 역시 시경의 영향을 받았다. 시경에 수록되어 있는 시 『나(那)』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분명해진다. 시에 등장하는 각종 악기의 용례가 제례의식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那(나)」

猗與那與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구나.
置我鞀鼓	내 작은 북과 큰 북을 걸고
奏鼓簡簡	북소리 둥둥 울리니
衍我烈祖	우리 열조가 즐거워하도다.

상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을 세 번 연주한 후에 제물을 바치고 제의를 진행했

23) 윤용섭, 『악 음악, 마음을 다스리다』. 글항아리, 2014, p.37.

다. 북을 울리면서 조상에게 예를 드리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은 제례의식에 음악이 사용되었음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湯孫奏假	탕 손주가 선조의 강림을 공손히 청하니
綏我思成	우리에게 북을 내리시도다.
鞀鼓淵淵	작은북 큰 북 소리 우렁차고
嘒嘒管聲	부드러운 소리 길게 울려
既和且平	그 소리 화합하고 평온하니
依我磬聲	당상의 옥경((玉磬) 소리와 잘 어울리네.
於赫湯孫	아아, 찬란히 빛나는 탕왕의 자손들이여!
穆穆厥聲	맑은 그 소리 아름답구나.

탕손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신을 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주는 연주를 하면서 조상신이 북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이 강림하여 북을 내려주시길 기원하는 위의 인용문을 통해 제례의식에서 음악이 지니는 의미성과 가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겠다.

庸鼓有數	종과 북이 성대히 울리면
萬舞有奕	아름다운 온갖 춤이 찬란하니
我有嘉客	우리의 객객께서
亦不夷懌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랴.
自古在昔	예로부터
先民有作	옛날 선민들의 지음이 있으니
溫恭朝夕	아침저녁으로 온화하고 공경하여
執事有恪	일을 함에 정성스러웠다.
顧予烝嘗	내 증제와 상제를 돌아볼진저
湯孫之將	탕왕의 후손이 올림이니라.

위의 인용문은 탕왕의 덕을 기리는 내용이다. 작은 북과 큰 북, 피리 소리가 큰 홀 아래서 연주되고 큰 홀(전당) 위에서는 옥경을 연주하고 무용을 하면서 제사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용(庸)은 북을 일컫는다. 북 외에도 피리, 옥으로 만든 경, 쇠북, 가죽으로 만든 북으로 탕왕의 덕을 기린다는 내용은 제례의식에서 음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한 번 더 상기시킨다.

이 시에 대해서 모, 한 모두다 탕왕을 기리기 위한 노래가사로 여겼다. 위원, 왕선겸 등 모두 다 송국인이 조상들을 추모하고 제자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간주하고 여겼다. 양공귀는 이 시의 내용에 착안하여 제례개시를 조상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무를 즐겼다고 지적했다: 고를 두드리고, 경을 치고, 피리를 불고, 종을 치고, 상나라 왕 자제들이 춤을 추고 만무를 춘 후에 채후에 제품과 희생을 바쳤다.<sup>24)</sup>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을 두드리거나, 경을 치고, 피리를 불고, 종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연후에 동물 등의 희생물을 바쳤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때 불려진 노래 가사는 탕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지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처럼 국가의 중대한 행사인 종묘제례악에서 악사들은 편종을 연주했음을 알 수 있다. 편종은 높은 음을 내는 종 8개가 위에 설치되고 아래에는 낮은 소리가 나는 종을 설치해 만든 악기이다. 또한 편종은 고대 사회의 최고통치자의 위상과 권위를 상징하는 악기였으므로 국가적인 의례에서만 연주되었다.<sup>25)</sup>

그리고 연주뿐 아니라 연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도 있었다. 이러한 노래의 가사는 시경에 수록된 시 나(那)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시였다. 시는 선조를 기리고 추모하는 종묘 제악의 노래 가사로도 읊어진 것으로서 시와 악은 늘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5. 결론

악은 인간성 함양의 필수 수단으로 덕을 닦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덕을 갖춘 인간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거듭나는 것인데 이때 수덕의 방법으로 악이 활용되어 왔다. 천명을 받을 만큼 덕을 갖춘 자는 사람이 따라야 할 인류의 규범과 법칙을 구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과 교육을 통해 육덕과 육행을 갖춘 사람이고 악을 통해 이러한 수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선진시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인을 갖추기 위해서는 六藝 즉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인간은 모든 행위에서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설파했는데 인간의 마음을 수양하고 조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악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예악을 통해 인간은 마음이 수양되고 사회관계에서 화(和)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예를 갖춘 인간에게 악은 화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인간은 자연과의 일치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악기나 노래를 선택해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변화, 달과 별의 조화나 음양의 조화, 밀물과 썰물의 조화,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무 색깔의 조화나 동식물의 조화를 보고 변화하는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동양적인 음악관은 자연에 대한 사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음악은 정서 함양의 도구로 인간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생명을 인지하듯이 소리로써 자연에 순응하게 만든다. 여러 가지 소리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인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정한 기분을 가진 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작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24) 這首詩毛，韓皆以是爲是祀成湯之樂詞。魏源，王先謙等皆認爲宋國人追際祖先而作。楊公祁 從詩的內容着眼，提出祭禮開始以歌舞娛祖先神：고 鞀鼓，擊磬，吹管，扣鐘，商族子弟唱歌跳萬舞，最后才獻上祭品犧牲。葉舒憲 著，『詩經的文化闡釋』，湖北人民出版社，1994，p.273.

25)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p.115.

26) 이희진, 『중화사상과 동아시아』, 책세상, 2007. p.20.

고대 중국인의 경전인 시경의 시들, 그리고 관저나 나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종묘제례에 사용되면서 국가의 안녕을 꾀하거나 공동체의 동질감을 제공하는 데 쓰여 왔다. 그리고 고대 중국인들은 악을 예의 완성의 수단으로 보면서 예와 악의 조화인 화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자는 고대 경전의 하나인 시경의 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아쉬움이 있다면, 시경 외에도 시공자의 예악관이 잘 드러나고 있는 논어나 춘추 좌전에서 나타나는 예와 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의 논문에는 시경과 춘추좌전에서 나타나는 예악관이나 화에 대한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악은 교화와 화해와 수덕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시경에 수록된 시 관저에서 나타나듯이 아내를 위해 베푼 연회에서 노래에 악이 가해지면 흥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흥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지 않고 보다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 사회도 고대의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음악적 요소를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화합을 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 【참고문헌】

- 張基樞, 『공자』, 平凡社, 1976.  
 금장태, 『한국 유학의 악론』, 예문서원, 2008.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김진균, 『古代 東西洋의 音樂觀』, 東西文化, 계명대학교, 1979.  
 미수 선생 허목 선설, 정경주 역, 『미수 경설 비해』, 세종출판사.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인간과 악기』, 모노폴리, 2016.  
 신은역, 『풍류』, 보고사, 1999.  
 윤용섭, 『악 음악, 마음을 다스리다』, 글항아리, 2014.  
 이희진, 『중화사상과 동아시아』, 책세상, 2007.  
 주경철, 『문화로 읽는 세계사』, 사계절, 2005.  
 韓萬榮·金仁平, 『東洋 音樂』, 삼호출판사, 1996.  
 Carlos Chavez, 『音樂中的思想』,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5.  
 葉舒憲, 『詩經的文化闡釋』, 湖北人民出版社, 1994.  
 오종일, 「시경 「관저」편과 치국 평천하」, 『공자학회논문집』, 2004.  
 오창화, 「鄭聲淫, 鄭衛之音에 대한 論考」, 『경성대학교 인문학논총』, 2008.  
 유지강·김창경, 「淺析『論語』中“禮樂”之“樂”」, 『동북아문화연구』, 2016.  
 류장교, 「시경 즐거움의 세계」, 『동아문화』, 제55집, 2017.  
 최경옥, 「禮 理念의 전개」, 『인문학논총』, 경성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01.08.

## 【논문초록】

키워드	국문	제천의식, 예악, 금과 슬, 종과 고, 화		
Key Words	영문	Ritual, Etiquette and Music, Jin and Se, Zhong and Go, Harmony		
<div>The Research of Music Thought in <i>the Book of Songs</i></div> <div>Song, Jin-Yeul</div> <p>This research aims at researching Music and Harmony appearing in <i>the Book of Songs</i>. This research focuses on music which it is perfected by a certain rule and has some function. The rule of music is related to five elements and to examine how music can make harmony and be a means of educating people.</p> <p>This research stars with Chinese musical consciousness and how music plays a role in army and war. The ancient Chinese emphasized social unity through the thought of Harmony and the emphasis of Etiquette.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analyzes how music can make harmony in the concrete in poem "Osprey and Na." The main purpose of research is to examine Chinese People thought "Etiquette and Music" through analysis of two poems.</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송진열 / 宋鎭烈 / Song, Jin-Yeul		
	소 속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Em@il	sjsimon@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5월 02일	심 사 일	2018년 05월 21일
	수 정 일	2018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2일